

Designing Tomorrow

17팀/ 김민채, 고은호, 최윤희, 허다연



느낌점

자율 주행 캡슐: 하늘을 나는 자동차, 드론 택시

민간 우주 여행: 우주 엘리베이터

인공지능: 삶의 동반자 AI, AI 주치의

인간 : 유전자 디자인 인간, 신체 기계 대체 인간

지능형 도시: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, 홀로그램 이동

나노 로봇: 질병 치료 및 건강 관리

김민채: 미래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미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. 미래에 기술이 발달해서 삶이 더 나아지면 저절로 문화와 예술도 발달할텐데 그것들을 못 보고 죽는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.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기술 발달 속도가 더욱더 빨라져서 인류의 끝을 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아니면 타임머신이 개발 되었으면 좋겠다. 그렇게 되면 죽기 전에 마지막 여행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을 텐데, 미래가 궁금하다곤 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과거로 가야할지 미래로 가야할지 모르겠다.

고은호: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많은 기술들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. 그 점을 생각하면, 지금은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우리가 상상한 미래 기술들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등장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, 나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, 필요한 기술을 배우며 직접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허다연: 과거에 상상만 하던 기술들이 현재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.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기술들이 미래에 언젠가 실현되어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앞으로의 더 획기적인 무궁무진한 발전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.

최윤희: 과거에 기술적으로 구현은 가능했으나 상용화가 불가능했던 기술들이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보니, 지금은 제한적으로만 구현가능한 기술인 완전히 투명한 유리 디스플레이를 통한 ar구현이나, 홀로그램을 통한 여러가지 기술들도 미래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을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다.

LLM 프롬프트

2050년의 미래 도시. 하늘을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택시, 캡슐형 이동수단이 하늘을 날고 있다. 지구와 달을 잇는 거대한 홀로그램 우주 엘리베이터가 도시 중심에 서 있다. 유전자 디자인된 인간과 신체를 기계로 대체한 인간, 그리고 삶의 동반자가 된 강인공지능이 공존한다. 사람들은 홀로그램 이동 기술로 공간을 오가며, 도시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과 풍력터빈으로 이루어져 있다. 나노 로봇과 AI 주치의가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한다.